어떠한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그 근본에다가 하나하나 놓고 가라

☞ 17면에서 계속

다 공을 집어넣는데 그 얼마나 빨라요, 글쎄. 사람들이 그냥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그까짓 거 한 번 죽지 두 번 죽느냐. 너 있으면 나 있고 나 있으면 너 있고 모두가 둘이 아닌데 말이에요. 세울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알 것도 없고 모든 게 그런데, 모두가 둘이 아닌데, 이 컵과 컵이 둘이 아니라면 한 컵이, 자기 컵 하나가 자기 컵을 깨트리겠습니까? 마주쳐야 깨트려지지. 그걸 명심하세요.

하여튼 여러분, 이 사람으로 치지 마시고 곤충의 주머니로 치시고 항상 '그 곤충 주머니나 곤충이나 둘이 아니고, 모두가 우리도 이런데 모두 딴 사람들도 다 둘이 아니겠지.' 모두가 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때에, 바로 믿어지는 게 있어야만이…. 그 믿어지는 거, 그 방망이 하나면 이 온 우주를 때려잡고도 남음이 있어요. 이거, 이 방망이요! 이 주인공이라는 자기 뿌리인 불성 말이에요. 이거면 이 세상을 다 잡고도 남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마음의 주장자 세우고 싶어요

질문 이제 겨우 마음공부에 인연이 된 초심자입니다. 근데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열심히 해 보려고 하는데 마음으로 진짜로 관해지지 않고 머리로 관해지는 것 같거든요. 저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주장자를 세우고 싶습니다. 한 말씀 일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지금은 모두 이 법문이 다 나가고 그러는데 그거 열심히 하려고만 한다면, 내 생활 속에서 하는 거니까, 생활 속에서 24시간 하는데, '내 몸이 송장인데 저 주인공 자불이 이렇게 생명력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나를 움죽거리게 하니까 모든 것이 그놈이 하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24시간 움죽거리고 자고 깨고 하는 거, 앉았다 서고 하는 거, 일하는 거 모두가 그렇게 하면 참선이 됩니다.

그래서 내 내면에 정말 공마당을 만들려면 자꾸 거기다가 놓고 가야 그것이 더불어 만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게을리 생각 마시고 몸은 앉았다 하더라도 마음은 게으르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몸은 비록 앉았으나 마음은 뛴다는 얘깁니다. 지금은 뛰지 않으면 안 되죠. 뛰지 못하면은 공부를 할 수가 없죠. 송장이 되기 때문에. 체가 없기 때문에.

인생의 황혼 녘에 접어들게 되니

질문 이제 나이가 들어 인생의 황혼 녘에 접어들게 되니 자식, 며느리들에게 괜히 서운해지고 외로운 마음이 더 깊어집니다. 주인공 줄 놓치지 않으려고 새벽 예불 시간에도 열심히 나가고는 있는데 허전한 마음은 여전합니다. 이 마음이 충만해지고 여여해질 수 있도록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하나하나 놓고 가라. 어떠한 거든지 용도에 따라서 그냥 놓고 가거라. 그냥 놓고 가라. 그 근본에다 놓으면 다 된다. 더 위로 올라가서 내가 더 알려고 하지도 말고, 더 내려가서 모르지도 마라. 오직 거기 근본에 직결되어 있는 그 자체에만 놓는다면 그대로 한생각에서 가정의 12대 종손까지도 모두 건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기 지혜를 넓혀 주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다가오는 자기 공부 재료를 막고 '나는 이런 거 싫다.' 이러는 거거든요. 한생각에서, 무슨 돈을 들여서 많이 차려 놓고 하는 것보다도 한생각에서 하는 게 제일 빠르다, 빠르다 이렇게 가르쳐도 여러분은 그렇게도 모르고 그저 남한테 기대고 말입니다, 네?

모두 사람들이 연세를 잡숫고 나이가 들고 그러면 남한테다 의존하는 마음도 생깁니다만 의존하는 마음이 더욱더 없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의존하는 생각이 있다면 모든 게 비틀어지고 모든 게 속상하고 내가 해 달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아이고, 불신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나는 나대로 더 비참하게 되고 나는 나대로 더 힘이 줄어들고 병이 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한생각에 따라서 일어날 수도 있고 누울 수도 있는 거고, 병이 들 수도 있고 병이 나을 수도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절대적으로 아주 죽을병이 들었을 때, 더욱더 그것은 자기가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죽지 두 번 죽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애원하고 여러 식구를 등에 업고서 걸음을 걷는데 무겁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면서 '여러분이 다 자기 자신의 자성을 알고, 의식에서 벗어나고 몸에서 벗어나고, 끄달리지 않아야 진리 속에서 여러분이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고 세계를 거둘 수 있고 평화를 가져올 수가 있는 그런 삶에 대한 보람을 느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인공을 믿고 이렇게 찾고 그러는데, 찾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본래 있으니 발견하라' 이런 소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모순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은 주인공을 머리로 굴리려고 한다 이겁니다. 내가 이번에 철저히 여러분의 마음을 검증했습니다. 여러분이 머리로 굴리는 경향이 즉 30%, 20%는 되더라 이겁니다. 머리는 쉬게끔 내버려 두고 마음으로써 뜻을 가져라 이겁니다. 믿음의 뜻! 뜻으로 내고 들이고 하는 거지 머리로 굴린다면 머리가 고장이 나요. 머리로 굴리는 게 아니라 믿는 것도 마음이요, 굴리는 것도 마음이요, 들이고 내는 것도 마음이요, 네? 마음에다 하면 절대로 고장이 나질 않아요. 머리로 굴리니까 머리로 산발이 돼서 바깥으로 내닫고 머리가 도는 사람도 있고 별사람 다 많은 거 아닙니까! 딴 짓들을 하고.

옛날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주인공이 나가라고 그래서 나간다,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온다 요런 소릴 하는 거예요. 그래 주인공이 나가란다고 나가고 들어오란다고 들어오느냐. 상황을 봐야지. 지켜보는 놈은 누구냐, 한 발 딛고 받치고 굴리는 놈은 누구냐 이겁니다, 굴리는 놈. 이것이 내가 해서 누(累)가 될 일이냐, 누가 안 될 일이냐? 이것을 해서 내가 이익할 거냐, 이익지 않을 거냐? 이것을 해서 남이 보기 좋은 거냐 보기 나쁜 거냐? 이런 거를 지켜보는 여러분이 있건만, 무조건 주인공이 하란다고 나가서, 바깥에 가서 춤을 추란다고 춤을 추시겠습니까? '저 바깥에 나가서 춤을 춰라.' 주인공에서 그런다고 하면 '허허! 내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테스트해 보는구나. 참 감사하구나.' 좀 이렇게 다시 굴려서 되놓을 줄은 왜 모르느냐 이 소립니다.

그렇다면 여기 와서 공부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노예가 돼서 그냥 살지. 이렇게 노예 짓을 하나 저렇게 노예 짓을 하나 마찬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머리로 굴리지 말라. 모든 건 마음에서 나오는 거 마음에다 놔라." 하는 거.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대로 하는 건 노예생활로 접어드는 길이다.

여러분이 값싸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중대한 실패를 가져올 수 있는지 모릅니다. 항상 내가 든든하더라도 한 번 더 딛고 한 번 더 흔들어 보는 그런 조심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항상 믿는 마음이, 물러서지 않는 마음이 한시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나 깨나. 그렇다고 해서 자나 깨나 손을 한데 모으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그 몸짓 발짓 하는 거, 난 싫어요. 왜? 귀신인가? 아주 진득하고 무겁게, 이 세상을 다 들어서 놓는 것처럼 무겁게 한마음 뜻으로다 놓는다면, 이 세상이 흔들려도 여러분의 마음 그 자리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제가 두 가지 얘기한 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머리로 굴리지 않는다. 모든 건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오고 가고 하는 것을 마음에다 놓는다. 믿고 물러서지 않는다. 그건 개별적인 자기가 아니라 포괄적인 자기다. 근본이다.' 이런 거 말입니다.

벌써 상식으로 생각을 해도 알겠지만 이 몸에 들어 있는 의식 자체들이, 모습 자체들이, 생명 자체들이 내가 모든 것을 '나와 너와 둘이 아니다' 그러곤 한마음으로 이렇게 해 준다면, 한 회사에서 "회장이나 사장이나 공장장이나 전부 우리는 한 도반으로서 한 식구다. 그러니깐 이렇게 벌어서 우리 같이 먹고 같이 살자." 이런다면 아, 누가 뭐랍니까? 누가 싸워요? 그러면 내 몸 안에 들어 있는 의식들이 파워를 일으키지 않는단 말입니다. 파워를 일으켰다가도 그렇게 다 갖다가 한마음으로 놓는다면 거기에서 '어, 난 죽을 수 없어.' 이럽니다. 왜? 자기가 자기 죽일 순 없거든, 자기니까. 곧바로 자기니까. 그렇게 수효가 많은 이름을 가졌는데도 전부 자기야.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죽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자기가 자기 죽일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어떤 때는 그냥 얼굴을 시커멓게 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여러 분 보죠. '에이, 저건 마음 한번 돌리면 저 속에서 전부 의식들이 그냥 한마음이 돼 주어서 파워 일으켰던 것 다 원활하게 만들고, 또 세포가 부패됐던 것이 모두 원활하게 되면 저 얼굴이 그냥 뽀얗게 하얗게 될 텐데….' 허허, 이렇게 아쉬운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나고 상대가 있는 거지 여러분이 나지 않고 무슨 부처가 필요 있고, 무슨 이 세상이 필요 있고, 상대가 필요 있고, 사랑이 있으며 의리가 있고 도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말하자면 그 정신을, 마음을 어떻게 해 가지고 가느냐에 달려 있어요. 나도 여러분과 같은 몸뚱이를 가지고 있고 눈코 달린 것도 같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어땠으며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그 마음 차이입니다.

> **아주 진득하고 무겁게, 이 세상을 다 들어서 놓는 것처럼 무겁게**
> **한마음 뜻으로다 놓는다면, 이 세상이 흔들려도**
> **여러분의 마음 그 자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모르는 병들이 계속 생기는지

질문 요즘은 의료 기술의 발달로 웬만한 질병은 거의 치료가 되고 있는데도 원인 모르는 병들은 또 계속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병들이 계속 생기는 것일까요?

답변 아무리 과학자들이 발견을 해냈다고 하더라도 그건 물질을 발견해 낸 것이지 어디서, 왜, 어떠한 연관성으로 인해서 이것이 왔느냐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해서 그 불치병을 고쳤다 하더라도 그건 바뀌어져요. 이름이 다른 걸로 바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으로서의 심성에 의하지 않고는 도저히 그것을 녹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입력이 된 데다가 입력을 다시 넣어야 입력이 없어지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음, 바로 "나부터 알아라." 한 것이 그 때문입니다. 나부터 알아야 모든 게 가고 옴이 없이 왕래가 되죠. 내가 나부터 알아야 모두가 일치돼서 같이 돌아간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약에 태양으로 들어갔다 합시다. 내가 태양이 됐다고 해요. 태양이 돼 가지고 그 태양계를 본다면 전부 그게 그거니까 그 속에서 다 알게 되죠. 그렇지만 그렇게 가고 옴이 없이 왕래하지 못한다면, 어디서 나온 줄도 모르고, 어디서 된 줄도 모르고, 어디서 온 줄도 모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밝혀냈다고 해서, 그 병의 원인을 밝혀냈다고 해서 그게 밝혀진 게 아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식물에 벌레가 자꾸 끼니까 독한 약을 줘서 다 죽였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죽었어요. 그런데 그 벌레가 벌써, '아, 저런 거를 뿌려서 이러는구나.' 하고 알았단 말이에요. 알고서는 안 죽어요. 그리고 딴걸로 대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천차만별로 인과성이라든가 유전성이라든가 세균성이라든가 영계성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사람의 정신이 모두 혼미해지고 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즉 말하자면 지금 병명들도, 발견한 사람들이 간암이니 백혈병이니 뭐니 뭐니 쭉 이름을 내놓은 거지, 그게 본래부터, 전자로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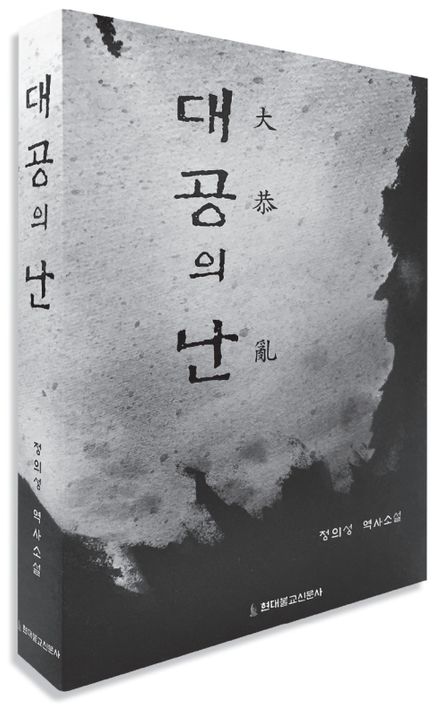
아무리 백혈병이다 골수암이다 해도 그것을 박차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이름이니까요. 그건 이름이라고. 내가 다스릴 수만 있다면, 내 마음으로써 내 육체 안에 들어 있는 그 모든 의식들을 다 흡수해서 작용할 수만 있다면 암이다 뭐다 하는 건 이름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실무자들이 작용하는 거는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똥 마려우면 똥 눌 뿐이에요. 그와 같은 거죠.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마하몰 02)732-1520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